
추모 박물관 그리고 현대소비사회: “가장 악의적”인 공간 속 “붕괴”에 관하여

차지민 (성균관대학교, 선임연구원)

〈목 차〉

- I. 서론
- II. 추모 박물관과 이미지
- III. 추모 박물관과 무관심
- IV. 추모 박물관과 소비사회
- V.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추모 박물관을 현대소비사회 안에서 고찰한다. 기존의 박물관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박물관이 속한 사회를 토론에 포용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박물관에 대해 논한다.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장 보드리야르의 이미지에 대한 이론을 통해 첫째, 추모 박물관 전시가 사실과 구분이 불가능해지는 현상이 어째서 “가장 악의적”일 수 있는지 둘째, 추모 박물관 전시 속 이미지가 어떻게 박물관의 메시지를 “완전히 무관심하게” 만드는지 셋째, 보드리야르의 현대소비사회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추모 박물관이 소비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즐겁게 소비되는지 탐색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간과되어왔던 현대소비사회를 추모 박물관과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박물관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다. 연구의 논의는 대표적인 추모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미국 워싱턴 디시의 홀로코스트 박물관과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있는 칠레 인권박물관을 통

해 진행된다.

주제어: 소비사회, 장 보드리야르, 칠레 인권박물관, 추모, 추모 박물관, 홀로코스트 박물관

I. 서론

장 보드리야르는(Jean Baudrillard)는 “사실에 가장 진실적이고, 가장 충실하고 가장 순응적으로 보일 때 이미지는 가장 악의적(most diabolical)”¹이라고 주장한다. 이미지가 “악의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가장 악의적”인 방법으로 과거를 전시하는 추모 박물관에 관한 연구에 보드리야르는 매우 중요한 논점을 던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박물관에 대한 논의에서 이미지는 박물관 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 정도로 여겨져 토론의 핵심에서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박물관 연구는 주로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박물관 자체에 집중하여 박물관이 설립된 역사적 혹은 정치적 배경에 대해 다루거나, 둘째, 박물관 내부에 주목하여 전시 구성 방법, 전시 형식, 전시품, 소장품, 전시 내러티브, 교육 프로그램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지금까지의 박물관 연구는 추모 박물관을 박물관 테두리 안에서만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틀에서 탈피하여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박물관 속 이미지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박물관을 현대사회에 위치시킴으로써 박물관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보드리야르의 이미지와 현대소비사회에 대한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추모 박물관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한다. 첫째, 추모 박물관 속 사실을 대체하는 “악의적” 이미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과거를 재연하는 전시와 사실의 “붕괴”에 관해 논하고 둘째, 추모 박물관이 어떻게 이미지를 통해 과거를 “인위적 기억”으로 대체시킴으로써 “망각”을 촉발하여 과거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하게” 만드는지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추모 박물관을 현대사회 안에서 이해함으로써 박물관이 어떻게 즐거움을 유발하는 매체로 소비되는지 고찰한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추모 박물관의 시초로 꼽히는

1. Baudrillard, *The Evil Demon of Images*, Left Bank Books, 1987, p. 13.

미국 워싱턴 디시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과 저자가 방문자 인터뷰를 시행한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있는 칠레 인권박물관(Museum of Memory and Human Rights)이 소개된다.² 추모 박물관 연구가 주로 미국과 유럽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치우쳐 있다면, 본 연구는 남미의 추모 박물관 사례를 논의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분석을 시도한다.

II. 추모 박물관과 이미지

1. 시뮬레이션의 공간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럼(Simulacrum)에 대한 논의는 추모 박물관을 분석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재연(representation)과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재연은 사인(sign)과 진실이 동일하다는 원칙에 뿌리를 둔다. [...]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이와 반대로 [...] 사인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며 [...] 시뮬레이션은 진정성 있는 현실(profound reality)을 가리며 변색시킨다. 고로, 시뮬레이션은 진정성 있는 현실의 부재를 감춘다.³

추모 박물관의 전시는 재연과 시뮬레이션 사이에서 교묘하게 균형을 잡으며 탄생한다. 즉, 박물관 전시는 과거라는 “진실”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전시품들 혹은 “사인”을 통해 과거를 재연하는 공간이지만, 이와 동시에 복제품과 원본들을 특정 시각을 바탕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진실”을 모방(시뮬레이션)하여 “진정성 있는 현실” 혹은 과거의 “진실”을 전시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때 시뮬레이션은 “현실과는 그 어떠한 상관관계도 맺고 있지 않은” 탓에 “자체적으로 순수한 시뮬라크럼(pure simulacrum)”⁴이 되어 “전체적인 시스템을 무

2. 인터뷰는 칠레 인권박물관의 허락과 방문자들의 동의를 받아 2017년 10월 진행되었으며, 응답자는 무작위로 선정되었음을 밝힌다.

3. Baudrillard, Jean, *Simulacra and simula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4, p. 6.

4. Baudrillard, 앞의 책, p. 6.

의미하게(weightless) 만들어”⁵버린다. 다시 말해, 추모 박물관은 “현실의 대역(operational double)”⁶이 재연을 위해 과거를 모방(시물레이션)하고 현실을 대체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전체적인 시스템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시물라크럼의 공간이다. 따라서 당시 사건(현실)을 전시라는 “대역”을 통해 대체해 버리는 공간인 추모 박물관은 흥미롭게도 방문자들이 이를 시물레이션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거나 개의치 않는 공간이기도 하다.⁷ 이로 인해 추모 박물관에서 보여주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닌 “현실의 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참여하는 방문객들에게 전시는 “진정성 있는 현실”로 인식되고, 이 때문에 “진짜”와 가짜 사이의 구분이 무너져버린 “현실은 그저 소비 혹은 운영되는”⁸ “무의미”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현실과 시물레이션의 구분이 허물어진 시물라크럼은 현실을 “소비 혹은 운영되는 상태”인 “완전한 조작의 공간으로 [...] 접어들게” 함으로써 “시물레이션에 입성”하도록 하는데,⁹ 보드리야르는 이러한 현상이 “한 축에서 다른 축을 구분하는 선”¹⁰이 “붕괴(implosion)”¹¹됨으로써 가능해진다고 지적한다. 즉, 박물관에 들어서는 순간 방문객들은 “진정성”있는 과거와 모방(시물레이션)된 과거를 “구분하는 선”이 “붕괴”한 “완전한 조작의 공간”인 “시물레이션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가 언급하는 “붕괴”는 비단 과거의 모방(시물레이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자와 희생자들 사이에도 발생한다. 방문객들이 “타인(희생자)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취”¹²하는 감정입을 통해 경험되는 추모 박물관은 이 둘을 구분하는 선이 “붕괴”하는 공간이다. 이처럼 “붕괴”

5. Baudrillard, 앞의 책, p. 5.

6. 위의 책, p. 2.

7.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시물레이션을 통해 박물관은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권유린 문제(“진정성 있는 현실”)에 대한 논의의 “부재”를 전시를 통해 의도치 않게 가리는 역할도 수행한다.

8. Baudrillard, 앞의 책, p. 2.

9. 위의 책, p. 31.

10. 위의 책, p. 31.

11. 위의 책, p. 31.

12. Ahmed, Sara. “Collective Feelings: Or, the Impressions Left by Others,” *Theory, Culture & Society*, 21(2), April 01, 2004, p. 36.

를 통해 방문객들은 “시물레이션에 입성하게 되며, 이는 완전한 조작의 공간으로 [...] *접어들게*”¹³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현실을 현실의 대역이 대응하는” “*시물레이션이 시작되는 지점*”¹⁴이다. 그렇다면 현실과 시물레이션 사이의 “붕괴”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2. “악의적” 공간

보드리야르는 현실(reality) 혹은 사실(the real)을 재연, 시물레이트(simulate)하는 이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이미지들은 사실을 선행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지는 사실과 그것의 재생산의 인과관계와 논리 순서를 도치시킨다. [...] (따라서) 이미지가 사실에 가장 진실적이고, 가장 충실하고 가장 순응적으로 보일 때 이미지는 가장 악의적이다.¹⁵

그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노출되어 있고 매일같이 소비하는 대중매체 그리고 소셜미디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실의 “재생산”인 이미지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소비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미지(“현실의 대역”)는 사실을 대체한다. 이처럼 “사실과 그것의 재생산”인 이미지 사이의 차이를 모호하게 흐려버리는 현상은 이미지에 더욱 사실인 것과 같은 힘을 실어주어 이미지를 사실로 믿게 만드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보드리야르는 이미지가 “가장 악의적”이라고 해석한다. 이미지의 “악의적”인 성격은 비단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이미지를 통해 과거의 사실을 전달하는 박물관 역시 이러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물관, 그중에서도 추모 박물관은 과거 발생한 사건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과거의 사실을 “재생산”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보드리야르의 이론에 따르면 과거에 발생한 사실을 “가장 진실적이고, 가장 충실하고 가장 순응적”으로 전시하여 방문객들이 이미지가 사실인 듯 경험하고 믿도록 하는 추모 박물관은 “가장 악의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13. Baudrillard, 앞의 책, p. 31.

14. 위의 책, p. 31.

15. Baudrillard, 1987, p. 13.

보드리야르는 이미지를 왜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일까?

보드리야르는 일상만이 영화화되고 텔레비전화된 것이 아니라 전쟁 역시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며 미디어 이미지들이 “전쟁의 연속성(the continuation of war)”을 유지시킨다고 분석하는데,¹⁶ 이때 이미지가 현실을 모델로 삼으며 사실에 순응할 때 사실을 더 잘 왜곡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보드리야르는 이미 종결된 전쟁이 미디어를 통해 반복됨으로써 사실을 “오염시킨다(contaminate)”¹⁷다고 해석하는데, 이에 관해 그는 1979년 베트남 전쟁을 주제로 한 *지옥의 묵시록(Apocalypse Now)*이라는 영화를 예로 설명한다 :

(영화는) 전쟁을 마치 기술적이고 환각적인 판타지와 같은 여행처럼 만들었다; 전쟁은 특수효과들의 연속으로, 전쟁은 영화가 촬영되기도 전에 영화가 되었다; [...] 영화와 전쟁은 이 둘에 공통적으로 넘쳐나는 기술(technology)로 하나가 되어(united) 전쟁은 영화가 되고 영화는 전쟁이된다.¹⁸

지옥의 묵시록은 실제로 발생한 전쟁(사실)을 재연한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인 영화가 사실과 현실에 “가장 진실적이고, 가장 충실하고 가장 순응적”으로 보이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특수효과는 전쟁(현실)을 “환각적인 판타지와 같은 여행처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보드리야르는 단순히 이미지가 사실을 시각화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현실을 모델삼아 탄생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오염”)시킴으로써 “전쟁은 영화가 되고 영화는 전쟁”이 되어버리는 “붕괴”를 문제로 인식한다. 그 이유는 전쟁이 영화(이미지)와 구분되지 않는 “불구분성(indistinguishability)”¹⁹을 갖게 되면서 이미 끝난 전쟁이 이미지에 의해 “연속성”을 갖고 되풀이됨으로써 전쟁이 갖는 사실의 힘을 잃게 만든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의 잔혹한 진실(brutal quality)”²⁰은 영화와 전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critical direction)도 ‘의식 깨우기(raised consciousness)’

16. Baudrillard, 앞의 책, p. 16.

17. 위의 책, p. 16.

18. 위의 책, p. 16.

19. 위의 책, p. 18.

20. 위의 책, p. 17.

에 대한 열망마저 없는 것”이라고 보드리야르는 꼬집는다.²¹ 즉, 영화가 “악의적”인 이유는 이미지가 사실을 집어삼킴으로써 사실이 “환각적인 판타지와 같은 여행”처럼 “즉각적이고 찰나의 논리(immanent, ephemeral logic)²²”로 경험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지가 자신의 근원을 지워버림으로써 “미디어 저편으로 메시지가 사라지는 의미의 붕괴(the implosion of meaning)²³” 그리고 “(사건들, 역사, 기억 등의) 의미의 부정(a denegation of meaning)”을 초래하는데, 이는 영화가 삼켜버린 현실의 메시지 즉 교훈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²⁴ 이처럼 이미지는 “선과 악 그리고 진실과 거짓을 뛰어넘는 깊이가 없는 부도덕한 논리²⁵”에 의해 작동하지만, 우리가 이미지의 “악의적”인 성격을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지는 “도덕적이고, 의미 있고, 교훈적이거나 정보를 제공하는(informational)” “선의적인 사용(a good usage)”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드리야르는 지적한다.²⁶

영화의 미디어인 이미지와 박물관의 전시에는 차이가 있으나 “불구분성”을 촉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박물관은 당시 상황을 마치 가상현실처럼 그대로 재연함으로써 전시가 현실과 구분이 불가능해지는 강력한 “붕괴”를 촉발한다. 또한, 전시 속 이미지들을 통해 과거가 “연속성”을 얻는 추모 박물관은 방문객이 당시 사건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기보다 과거를 “환각적인 판타지와 같은 여행”처럼 “즉각적이고 찰나의 논리”로 체험하도록 하여 박물관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의 “악의적” 속성은 “선의적 사용”이라는 믿음에 가려져 “도덕적이고, 의미 있고, 교훈적”이라고 인식된다. 그렇다면 보드리야르가 이미지의 악의성에 대해 우려한 이유는 무엇일까?

21. Baudrillard, 앞의 책, p. 17.

22. 위의 책, p. 22.

23. 위의 책, p. 22.

24. 위의 책, p. 22.

25. 위의 책, p. 22.

26. 위의 책, p. 22.

III. 추모 박물관과 무관심

1. “망각”의 공간

보드리야르는 이미지에 대한 논의가 나치 수용소에 대해 다룬 티브이시리즈 홀로코스트를 상기시킨다며 몰살(extermination)에 대해 잇는 것은 몰살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정의한다. 그는 “홀로코스트의 유대인들이 사운드 트랙과 이미지들을 통해 재사용(recycle)되며 “인위적 기억(artificial memory)”으로 대체 되는 현상²⁷ 유대인들의 몰살을 되풀이(replay)함으로써 홀로코스트를 “무의미한” 이미지로 “망각(oblivion)”²⁸시킨다고 해석한다. 즉, 홀로코스트(현실)는 “즉각적이고 찰나의 논리”를 촉발하는 이미지를 통해 “환각적인 판타지와 같은 여행”처럼 전시됨으로써 “인위적인 기억”으로 대체되고 “연속성”이라는 반복적 노출을 통해 “망각”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몰살 그리고 “잇는 행위(forgetting)”²⁹는 “미디어 저편으로 메시지가 사라지는 의미의 붕괴”, 즉 사실을 왜곡하는 이미지라는 미디어가 보여주는 희생자들의 처참한 모습이 방문객들에게 촉발하는 충격과 같은 “즉각적이고 찰나의 논리”에 의해 홀로코스트가 전하려는 교훈(메시지)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미지의 “선의적인 사용”에 충실한 추모 박물관은 이미지를 통해 과거에 “연속성”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의미의 부정”을 발생시키는 셈이다. 이 때문에 보드리야르는 “TV를 통해 모두가 알게 되고, ‘이미지’가 재연한 사실을 보며 두려움에 떠는 것이 홀로코스트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인으로 치부”³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현재 홀로코스트와 같은 몰살은 TV를 통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TV를 통해 탄생하는 “연속성”을 “의미의 부정”과 연결해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보드리야르는 홀로코스트에 관한 티브이시리즈가 홀로코스트의 교

27. Baudrillard, 앞의 책, p. 22.

28. 위의 책, p. 23.

29. 위의 책, p. 22.

30. 위의 책, p. 23.

훈인 “두 번 다시는(Never Again)”이라는 집단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을 일깨움으로써 “아우슈비츠의 무게(the mortgage of Auschwitz)”³¹가 사라졌다고 믿도록 만든다며 TV는 “사실에 가장 진실적이고, 가장 충실하고 가장 순응적”인 이미지를 통해 홀로코스트에 “연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사실을 “망각”하도록 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한다. 즉, 현실의 “완벽한 리메이크들”³²을 탄생시키는 TV에 의해 재연된 (영화화된) 홀로코스트(이미지)가 사실과 분리가 불가능해짐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악의적” 문제 혹은 “붕괴”는 우리를 “완전히 무관심하게(totally indifferent)”³³ 만드는 데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다시 말해, “의미의 부정”에 의해 작동하는 TV는 감정적인 경험을 유도하는 “즉각적이고 찰나의 논리”를 따르는 “심미적인 신의(aesthetic good faith)”³⁴를 통해 대중들이 홀로코스트를 “망각”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과거의 무게를 경감시키는 “가장 악의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드리야르는 TV를 “단념의 미디엄(a medium of dissuasion)”³⁵으로 해석한다. 즉, “단념의 미디엄”인 TV는 대중을 무관심하게 만드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선의적인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대중에게 스스로 사실을 “인위적 기억”으로 “오염” 그리고 “전멸(annihilation)”³⁶시키도록 한다. 보드리야르의 이러한 해석을 추모 박물관에 대입하여 보면 과거의 현실을 이미지를 통해 전시하는 추모 박물관은 사실을 “인위적인 기억”으로 대체하여 방문객들을 “완전히 무관심하게”만드는 “단념의 미디엄”인 셈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살펴본 논의가 추모 박물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있을까?

2. 사실의 공간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칠레 인권박물관³⁷의 인터뷰 중

31. Baudrillard, 앞의 책, p. 23.

32. 위의 책, p. 29.

33. 위의 책, p. 29.

34. 위의 책, p. 23.

35. 위의 책, p. 23.

36. 위의 책, p. 22.

37. 2010년 개관한 이 추모 박물관은 1973년부터 1997년까지 칠레의 군사독재정권을 이끈 아우구스토

인상적인 소감이 있었다. 한 방문객은 방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저는 (대통령 관저인) 라모네다(La Moneda)가 (군사 쿠데타에 의해) 폭발되고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을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책이나 인터넷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실감 날 테니까요.

무척 즐겁고 상기된 표정의 이 방문객에게서 추모 박물관 방문이 마치 오락 혹은 흥밋거리와 같이 여겨지고 있는 듯한 인상이 강하게 들었지만, 그보다도 저자의 관심을 끈 것은 방문자가 박물관 경험이 “훨씬 더 실감”날 것 같아 방문하였다는 사실이었다. 이 방문객은 이미지가 사실을 모델삼은 미디어가 아니라 사실 그 자체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모 박물관을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추모 박물관이 과거 상황을 충실하게 전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놀라운 반응은 아니다. 한 예로, 대표적인 추모 박물관으로 꼽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전시 사례를 보면 방문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희생자가 되어 수용소 안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질 만큼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 워싱턴 디시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전시는 나치 강제수용소와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옮겨질 때 탔던 기차를 통해 당시 상황을 완벽하게 재탄생시키는데, 이를 더욱 진짜처럼 만드는 데에는 물리적인 전시품 외에도 심리적인 장치가 존재한다.

전시 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옆에는 희생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작은 책자 크기의 신분증들은 놓여있는데, 이는 방문객들이 승강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한 부씩 집어 읽어 보도록 배치되어 있다. 어찌 보면 부수적으로 보이는 이 신분증은 전시와 방문객들을 연결하는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무작위로 선택한 신분증을 받아 들고 승강기에 탑승한 방문객은 엘리베이터 문이 전시실에서 다시 열리는 순간, 한 개인에서 신분증 속 희생자가 되어 입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문자들이 심리적으로 신분증 속 희생자로 재탄생함으로써 전시는 더욱 현실감 있게 경험될 뿐만 아니라 흥미로워진다 (entertaining).

피노체트(Augusto Pinochet)에 의해 희생당한 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칠레 인권박물관의 경우에는 “부재와 기억(Absence and Memory)”³⁸이라는 전시품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저자가 인터뷰한 방문객 대다수는 이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았으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슷한 감회를 밝혔다 :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사진 속 남자가 저일 수도 아니면 제 친구일 수도 있기 때문 이죠.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보면 그를 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치 친구가 죽은 듯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처럼 방문객들이 심리적으로 희생자들과 일치(align)³⁹되도록 유도하는 전시 형식은 추모 박물관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전시방법이다. 신분증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시품들로는 희생자들의 결혼 혹은 가족사진, 개인소장품, 생존자들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전시품들은 방문자들의 감정이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시에 대한 몰입을 상승시켜 주는 유용한 장치로 이용된다. 이처럼 전시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전시 요소에는 보드리야르가 지적하는 “악의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도덕적이고, 의미 있고, 교훈적이거나 정보를 제공”하려는 “선의적인” 의도를 갖는 신분증은 방문객을 희생자에게 이입시킴으로써 홀로코스트를 “즉각적이고 찰나의 논리”를 따르는 충격요법을 통해 감정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이는 홀로코스트와 이미지(전시품)의 구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넘어 전시품을 홀로코스트 자체로 인식하도록 하여 홀로코스트라는 이미지만 기억하도록 할 뿐 사실을 “망각”하게 하여 홀로코스트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하게” 만든다. 이처럼 희생자들의 사진은 홀로코스트의 신분증과 같이 현재의 방문객들이 과거의 타자인 희생자들과 심리적으로 일치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⁴⁰ 추모 박물관의 전시 형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 연구자 중에는 홀로코스트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전시

38.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살해, 고문 혹은 실종된 이들의 사진들로 구성된 이 작품은 전시실 2층과 3층의 벽을 가득 메우고 있다.

39. Ahmed, Sara., 앞의 글, p. 26.

40. 위의 글, p. 36.

될 경우 당시 상황이 하찮게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⁴¹ 티모시 루크(Timothy Luke)는 이러한 학자 중 한 명으로, 그는 “홀로코스트의 오락적인 극화”가 방문자들이 전시를 “나치 독일의 상황을 마치 소규모 디즈니랜드와 같이 경험”⁴²하게 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즉, 그는 “훨씬 더 실감”나게 구성된 전시가 오락적인 경험을 촉발해 박물관이 전달하려는 교훈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방문객들의 공감과 몰입을 돕기 위해 사용된 다양한 전시품들이 본의 아니게 홀로코스트를 “환각적인 판타지와 같은 여행”처럼 경험하도록 하는데, 이는 홀로코스트의 “맥을 빠지게 하는 효과(flattening effect)”⁴³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방문객들이 “이러한 끔찍한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정한 믿음(uneasy faith)”⁴⁴ 혹은 “심미적인 신의”를 갖고 “매우 즐거운 상태(highly entertained)”⁴⁵로 박물관을 나설 수 있는 데에는 박물관의 전시가 방문객들을 마치 TV처럼 “이미지가 재연한 사실을 보며 두려움에 떠는 것이 홀로코스트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인으로 치부”해버리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모 박물관의 존재 자체가 “아우슈비츠의 무게”를 경감시키는 이유는 사실이 이미지에 의해 “인위적인 기억”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몰살되고 “망각”되기 때문이다. 즉, 이미 지인 추모 박물관이 사실(과거)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둘의 구분이 모호해짐으로써 추모 박물관의 존재가 현실 혹은 사실의 무게를 경감시켜 과거의 사실을 “전멸”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처럼 홀로코스트가 “환각적인 판타지와

41. Branham, Joan. “Mapping Tragedy in the U.S. Holocaust Memorial Museum,” *The Tragic in Architecture*, October 2000, p. 55 ; Blair, Carole. “Reflections on Criticism and Bodies: Parables from Public Places,”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65(3), Summer, 2001, pp. 271~294 ; Gourevitch, Philip. “Behold now behemoth,” *Harper’s Magazine*, 287, July 01, 1993, pp. 1718 ; Lennon, John, & Foley, Malcolm. “Interpretation of the Unimaginable: The U.S. Holocaust Memorial Museum, Washington, D.C., and “Dark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38(1), August 01, 1999, pp. 46~50.

42. Luke, Timothy. W., *Museum politics: Power plays at the exhibi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2, p. 64.

43. Blair, Carole., 앞의 글, p. 275.

44. Luke, Timothy. W., 앞의 책, p. 64.

45. 위의 책, p. 64.

같은 여행”처럼 경험되는 혹은 “디즈니랜드와 같이 경험”되는 이유는 박물관이 사회와 독립된 개체가 아닌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IV. 추모 박물관과 소비사회

1. 소비의 공간

현대소비사회에 대해 보드리야르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한다.

재력을 가진 이들은 과거와는 달리 더는 다른 인간들에게 둘러싸이지 않고, 상품들(objects)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들이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것은 [...] 상품들과 메시지들의 구입과 조작(manipulation)을 통해 발생한다 [...] 우리들은 상품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즉, 우리는 상품들의 리듬, 그들의 끝없는 주기를 쫓으며 살아간다.⁴⁶

이처럼 현대인들은 더는 다른 인간과의 관계가 아닌 상품과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상호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를 통해 존재한다. 따라서 소비자인 개인은 상품을 “특정 유용성(specific utility)”이 아닌 “상품들의 모음(a collection of objects)으로서 전체 의미(total meaning)”를 바탕으로 이해한다. 이 때문에 보드리야르는 소비사회 속 우리의 일상은 완벽하게 “동질화(homogenization)”된 소비로 “소화”되어, 우리의 삶도 소비도 “더 이상 그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한다.⁴⁷ 즉,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동질화”된 우리의 삶과 소비는 구분이 불가능해지는 “불구분성”을 갖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과 소비는 “메시지가 사라지는 의미의 붕괴”를 통해 “더 이상 그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게 되었다. 또한, “스스로의 모든 잠재력, 모든 소비 능력을 실현시켜야(actualize)”⁴⁸하는 개인은 소비에 “집착”⁴⁹하게 되는데, 이는 “더 이상 그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는 “의미의 부정”을 생산하는 소비를 하도록 주장한다. 다

46. Baudrillard, Jean, & Poster, M. *Selected writing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p. 29.

47. Baudrillard, 앞의 책, p. 35.

48. 위의 책, p. 48.

49. 위의 책, p. 49.

시 말해, “상품들의 리듬, 그들의 끝없는 주기를 좇으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하는 소비는 “취향도, 특정 기호”⁵⁰도 존재하지 않는, 나와 타인의 소비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동질적 소비로, 보편적이고 의미없는 행위이다. 이처럼 특정성이 사라진 “보편적인 호기심(a generalized curiosity)에 의한”⁵¹ 소비는 소비의 대상이 이미지이든 사실이든 상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완전히 무관심”해지도록 한다.

이처럼 상품 자체가 아닌 “상품들의 모음으로서 전체 의미”가 더 중요해짐으로써 소비 역시 단독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게 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추모 박물관 방문 역시 독립적인 경험 혹은 소비가 아니라 다른 소비 활동과 맞물려 발생한다. 즉, “의미의 붕괴”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추모 박물관을 그 장소가 갖는 “특정 유용성”이 아닌 “상품들의 모음으로서 전체 의미”로 이해함으로써 추모 박물관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망각”하여 다른 장소에서 행해지는 소비행위가 추모 박물관이라는 공간으로 “붕괴”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러한 “붕괴” 중 본 연구는 추모 박물관이라는 슬픈 공간에서 촉발되는 즐거움에 주목한다.

2. 즐거움의 공간

현대인들이 사물과 상품이 뿜어내는 메시지 속 소비의 중심에서 일과를 보낸다고 분석한 보드리야르는 소비를 “완전하게 집단적인” 행위이자 “집단이 통합되도록 보장하는 구조”⁵²로 “즐거운 도덕성(fun morality)”⁵³을 지녔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그의 해석은 추모 박물관과 닮아있다. 추모 박물관은 대체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는 교훈을 함의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치유를 통한 사회적인 “통합”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⁵⁴ 다시 말해, 대중

50. Baudrillard, 앞의 책, p. 49.

51. 위의 책, p. 49.

52. 위의 책, p. 46.

53. 위의 책, p. 49.

54. Annis, Sheldon, “The museum as a staging ground for symbolic action,” *Museum International*, 38(3), January 01, 1986, pp. 168~171 ; Armada, Bernard, J. “Memorial agon: An interpretive tour of the National Civil,”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63(3), March 01, 1998 ; Chrysler, Greig &

들은 이미 “가치가 있다고 지정”된 추모 박물관을 방문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교훈을 소비함과 동시에 추모 박물관이 “가치가 있다”는 “집단적인” “소통의 시스템”을 “생산하는 구조에 얽”히게 된다.⁵⁵ 여기서 소비가 “즐거움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이러한 소비의 속성은 애도의 공간인 추모 박물관을 소비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거부감과 죄책감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추모 박물관을 소비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로서 사는 개인에게 “모든 것이 시도되어야만 한다.”⁵⁶ 즉, 그는 현대사회에서 이뤄지는 소비를 “집착”적인 행위로 간주하며, 이는 즐거움(pleasure)에 대한 강박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하는데, “그 어떠한 즐거움도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취향”과 “기호”와는 상관없는 “즐거움 도덕성”을 지닌 “보편적인 호기심”에 의해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소비를 위한 소비를 한다는 것이다.⁵⁷ 그의 논리를 추모 박물관에 적용하여 보면, 사람들이 추모 박물관을 찾는 이유는 “열망도 취향도 특정 기호”가 있어서라기보다 “그 어떠한 즐거움”도 놓치지 않으려는 강박과 “집착”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조금 더 과격하게는 “모든 것이 시도되어야만”하고 “그 어떠한 즐거움”을 주는 가능성을 모조리 착취해야 한다는 “집착”이 추모 박물관 방문의 동기가 되는 셈이다. 이처럼 애도와 소비 사이에 존재하는 축의 “붕괴”는 추모 박물관을 “즐거움 도덕성”의 공간으로 변모시킬 뿐만 아니라 방문 자체를 즐거운 것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추모 박물관 전시에서 촉발된 슬픈 감정을 마치 슬픈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느끼는 “오락적 애도(recreational grief)”⁵⁸로 만들어 전시 내용을

Kusno, Abidin, “Angels in the Temple: The Aesthetic Construction of Citizenship at the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Art Journal New York*-, 56(1), January 01, 1997, pp. 52~64 ; Young, E. James, & Mazal Holocaust Collection, *The texture of memory: Holocaust memorials and meani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55. Baudrillard, 앞의 책, p. 46.

56. 위의 책, p. 48.

57. 위의 책, pp. 48~49.

58. West, Patrick, *Conspicuous compassion: Why sometimes it really is cruel to be kind*. London: Civitas, Institute for the Study of Civil Society, 2004, p. 11.

“무의미”하게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자체의 “땀을 빠지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소비사회 속 추모 박물관은 과거 참혹했던 인권유린의 실상이 죄책감 없는 즐거움에 의해 소비되는 “즐거운 도덕성”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현대인들에게 “기쁨과 흥분, 즐거움을 경험하고, 만족감을 주는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착취하는 것”⁵⁹에 대한 “집착”을 해소해주고 “보편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무의미”한 공간인 셈이다. 따라서 박물관에서 발생하는 소비는 방문객들이 “매우 즐거운 상태”로 방문을 마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끔찍한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정한 믿음”을 심어준다는 의미에서 우려스럽다. 그 이유는 이미지가 사실을 “인위적인 기억”으로 대체함으로써 홀로코스트의 메시지가 “미디어 저편으로 [...] 사라지는 의미의 붕괴”에 의해 “망각”되도록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칠레 인권박물관에서 진행된 저자의 방문객 인터뷰에서도 관찰되었다. 방문객들은 박물관을 나서는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해요.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고통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희망적이지요. [...] (당시의 만행은) 끝난 일(closed subject)이니까요. 그건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을 나서면서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박물관을 방문한 뒤 저는 당시 독재정권의 인권유린이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는 역사니까요. 비록 최근(1970년)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전 그저 과거의 일일 뿐이죠.

이처럼 방문객들이 “매우 즐거운 상태”로 박물관을 나설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일”이며 “과거의 일일 뿐”이라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정한 믿음”에 대한 모순적이게도 확고한 믿음 때문이다. 이에 관해 루크는 홀로코스트의 오락적인 극화가 방문객들에게 “놀라움/경악/호기심”⁶⁰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들이 박물관을 떠날 때 과연 얼마나 진지한 숙고 혹은 비판적인 판단을 할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홀

59. Baudrillard, 앞의 책, p. 49.

60. Luke, Timothy, W., 앞의 책, p. 64.

로코스트 박물관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도덕적 경계심(moral vigilance)”을 일깨웠을지는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박물관 속 공포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우 즐거운 상태”로 박물관을 나섬으로써 이러한 끔찍한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정한 믿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한다.⁶¹ 다시 말해, 루크는 “무척 훌륭한 엔터테인먼트 도구인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전시가 (과거를) 훌륭하게 모방함으로써 모순적이게도 박물관이 전하려는 중요한 의도를 축소”⁶²시켜 오히려 박물관이 전하려는 “도덕적 경계심”을 무디게 만들어 버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즉, 홀로코스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추모 박물관은 “악의적인” 이미지에 의해 “단념의 미디엄”이 되어 방문객들을 오히려 “완전히 무관심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추모 박물관과 소비사회를 가르는 축의 “붕괴”는 박물관이 전달하려는 “두 번 다시는”의 메시지를 “무의미”하고 이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하게” 만드는 모순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추모 박물관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V. 결론

박물관과 사회 사이의 “붕괴”는 부정적이라기보다 불가피한 현상이다. 하지만 박물관은 이를 외면하는 듯하다. 즉, 박물관을 방문하는 이들은 현대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은 과거를 교육하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탈피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이에 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박물관이 당사자인 “희생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현재의 사람들(people of today)”⁶³을 위한 장소이기 하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모 박물관이 희생자들을 위한 공간만이 아닌 “현재의 사람들 [...] 그리고 그

61. Luke, 앞의 책의 책, p. 64.

62. 위의 책, p. 61.

63. Gunter, Joel, “Yolocaust: How should you behave at a Holocaust memorial?” BBC News, 2017.01.20.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38675835>, 2020년 8월 30일 접속)

들의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위해 존재”⁶⁴한다는 말은 박물관이 현재와 미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모 박물관은 과거를 전시하는 공간이지만 “현재의 사람”이 방문하는 곳인 만큼 이를 경험하는 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시를 꾸며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박물관은 현실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효과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8년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개관한 유산 박물관(Legacy Museum)은 박물관을 현재와 연결함으로써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박물관 관행에 새로운 비전을 제안하는 좋은 사례이다.

19세기 미국의 흑인 노예제도가 21세기 흑인들이 겪는 차별과 어떻게 일맥상통하는지를 다루는 이 추모 박물관을 저자가 방문하였을 때, 기존의 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몇 가지 새로운 요소들을 발견하였다.⁶⁵ 박물관 전시는 첫째, 관습적으로 과거의 사건만 전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예제도를 현재 흑인들에게 가해지는 인종차별과 연결함으로써 흑인 노예 역사를 종결된 “과거의 일”이 아닌, 여전히 존재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루고 있었다. 이는 통상 과거로 제한되었던 전시 내러티브 시제의 틀을 파괴하였다는 점에서 무척 획기적이다.⁶⁶ 둘째, 다른 박물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셀카를 규제하는 사인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는 박물관 안에서 일상의 습관이 “붕괴”되어 박물관을 즐겁게 소비하는 행위를 제어하는 효과적인 장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셋째, 전시 마지막에는 터치스크린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방문자는 검색을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 혹은 관심 있거나 종사하는 분야와 관련된 흑인자선단체에 봉사활동 혹은 기부를 할 기회를 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전시 말미에 박물관과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이는 방문자들이 박물관을 나서는 순간, 현실로 빠르게 회귀하는 현상을 지연시킴과 동시에 박물관에서의 경험을 일상(사회, 현재, 미래)에서 지속할 수 있는데 기여한

64. Gunter, 앞의 기사.

65. 저자는 박물관을 2018년 11월에 방문하였다.

66. 이러한 과감한 변화가 가능했던 데에는 박물관장을 미술사학자, 역사학자 혹은 큐레이터 출신이 맡았던 관행을 타파하고 흑인 인권 운동가이자 변호사가 맡았다는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생산적인 “붕괴”를 실현하고 있었다. 이처럼 박물관이 과거의 공간에서 탈피하여 현실과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면 방문객들은 박물관을 나설 때 과거를 “해피엔딩”이라는 시뮬라크적인 결말이 아닌 일상에서의 새로운 시작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추모 박물관에서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두 번 다시는”이 가능한 현실 그리고 미래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참고문헌

- Ahmed, Sara. "Collective Feelings: Or, the Impressions Left by Others," *Theory, Culture & Society*, 21(2), April 01, 2004, pp. 25~42.
- Annis, Sheldon. "The museum as a staging ground for symbolic action," *Museum International*, 38(3), January 01, 1986, pp. 168~171.
- Armada, Bernard. J. "Memorial agon: An interpretive tour of the National Civil,"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63(3), March 01, 1998.
- Baudrillard, Jean, *Simulacra and simula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4.
- Baudrillard, Jean. & Poster, M. *Selected writing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 Baudrillard, *The Evil Demon of Images*, Left Bank Books, 1987.
- Blair, Carole. "Reflections on Criticism and Bodies: Parables from Public Places,"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65(3), Summer, 2001, pp. 271~294.
- Branham, Joan. "Mapping Tragedy in the U.S. Holocaust Memorial Museum," *The Tragic in Architecture*, October 2000, pp. 54~59.
- Crysler, Greig & Kusno, Abidin. "Angels in the Temple: The Aesthetic Construction of Citizenship at the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Art Journal New York-*, 56(1), January 01, 1997, pp. 52~64.
- Gourevitch, Philip. "Behold now behemoth," *Harper's Magazine*, 287, July 01, 1993, pp. 1718.
- Gunter, Joel. "Yolocaust': How should you behave at a Holocaust memorial?" BBC News, 2017.01.20.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38675835>, 2020년 8월 30일 접속)
- Lennon, John, & Foley, Malcolm. "Interpretation of the Unimaginable: The U.S. Holocaust Memorial Museum, Washington, D.C., and "Dark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38(1), August 01, 1999, pp. 46~50.
- Luke, Timothy. W.. *Museum politics: Power plays at the exhibi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2.
- Young, E. James. & Mazal Holocaust Collection. *The texture of memory: Holocaust memorials and meani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 West, Patrick. *Conspicuous compassion: Why sometimes it really is cruel to be kind*. London: Civitas, Institute for the Study of Civil Society, 2004.

Abstract

Memorial Museum and Consumer Society: Regarding “Implosion” in the “Most Diabolical” Space

Cha, Jimin (Sungkyunkwan University, Researcher)

This research investigates memorial museums in the context of consumer society. Unlike the existing studies, which focus mainly on the exhibition, this research differentiates itself from the current studies by inviting society to its examination. Based on Jean Baudrillard’s critical views on image and consumer society, this study tackles memorial museums in a new light largely in three aspects. First, this study inspects why the phenomenon of “indistinguishability” can be “most diabolical.” Second, this research examines how the image in memorial museum’s exhibition replaces the past with “artificial memory” by causing visitors to become “totally indifferent” to the message the museum is trying to convey. Third, based on Baudrillard’s theory on the consumer society, this research locates memorial museums in consumer society to explore how museums are consumed happily by visitors, who enter the museum from where consumption is prevalent. Thus, this research proposes a new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museums by connecting the museums to consumer society, which is an aspect that has been overlooked so far in the discussion of memorial museums. For the discussion, cases of the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in Washington, DC. and Museum of Memory and Human Rights in Santiago, Chile will be introduced.

Keywords: Commemoration, Consumer Society, Jean Baudrillard, Holocaust Memorial Museum, Memorial museum, Museum of Memory and Human Rights

논문 투고일 : 2020년 08월 31일
심사 완료일 : 2021년 04월 10일
게재 확정일 : 2021년 04월 16일